

					1-E-3
제목	국문	일차진료의 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영문				
저자 및 소속	국문	안형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문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의질]	발표자	안형식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의학지식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진료에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논란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진료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치료행위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사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본 연구에서는 경인지역의 일부 일차진료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래에서 행하여진 진료 행위 중 일차진단과 이에 따른 일차 중재를 분류하고 일차중재의 과학적 근거 적용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일차중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검토는 표준적 교과서, Medicine, Clinical Evidence, Best Evidence, Cochrane database 를 이용하여 무작위배정임상실험의 결과를 검색하였고 임상실험의 결과가 없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일차중재의 근거 정도를 3 단계로 분류하고 전체 진료 행위 중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 행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p> <p>3. 결과</p> <p>중재 I 과 중재 II 에 해당되는 치료를 합산한 결과 전체 410 개의 일차진료-일차치료 짝 중 58.3%에 해당하는 239 짝을 근거에 기초를 둔 치료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중 44.6%는 한 개 이상의 무작위배정임상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였고 13.7%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 치료였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1 개 이상의 무작위배정임상실험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총 22 짝으로서 5.4%였다. 표준적 교과서, 컴퓨터 문헌검색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일차진료-일차치료 짝은 전체 중 149 짝으로 36.3%였다.</p> <p>4. 고찰</p> <p>기존의 외국의 연구에 비하여 근거에 입각한 치료의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근거중심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